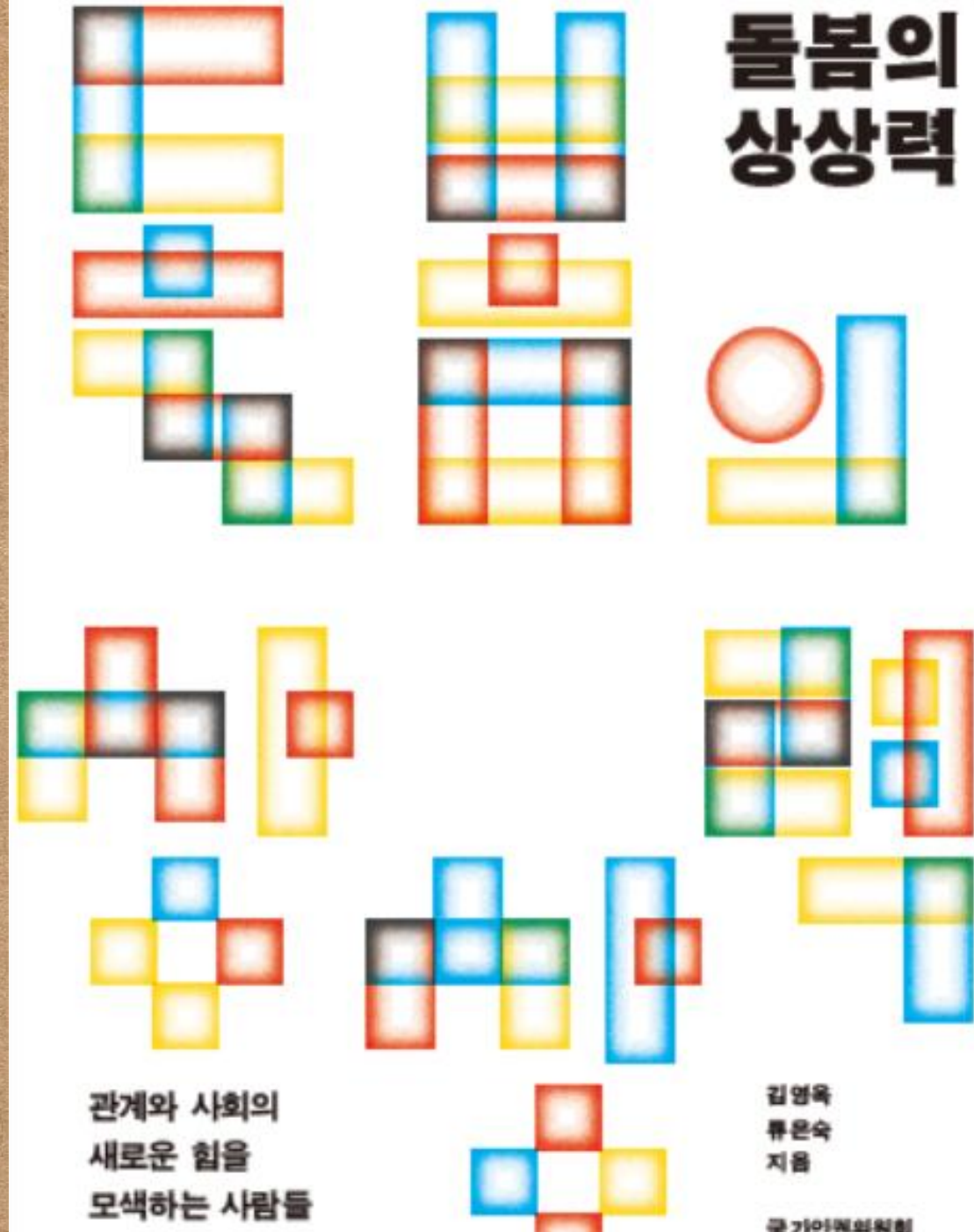


돌봄으로  
새로 쓴  
인권의 무늬

# 돌봄과

돌봄사회로 가는 길:  
돌봄노동의 탈젠더화  
(류은숙, 인권연구소 '창')



# 1. 돌봄을 어떻게 말하는가?

돌봄의 토대-철학과 가치

# '의존'에 대한 통념

---

두려움, 공포

---

배제, 거리두기, 부정, 추방

---

일방적인 것으로 간주

# (상호)의존성

---

자립? 자기 혼자 힘으로?

---

'의존하지 않는 것'이 아니라 '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'

---

모든 의존은 '상호적'

#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나?

누구나 상호의존한다=누구나 취약하다(보편적 취약성)

하지만, 누구는 더 불평등하게 취약성을 배분 받는다

누구는 더 불안정하고 더 취약하다 ≠ 개인의 정체성

# 돌봄을 말해온 방식은?

아름다운, 숭고한, 좋은... 사회경제정치적 관계와 동떨어진  
윤리적 차원의 논의들

지겨운, 외로운, 두려운, 막막한... 당장 현실의 문제들 토로하  
는 '독백', 가학적, 폭력적인 사건들의 부각

급하다 급해, 그냥 늘려 늘려, 철학과 가치의 토대 없는 도구  
적 접근

# '돌봄'에 대한 다양한 반응

성별화된 불평등한 돌봄 분배와 책임/돌봄 노동자 관련...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논의...그걸로 충분한가? 그 다음엔 무엇을?

보편적 이슈가 아닌 특정한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간주

내가 왜 돌봄 '대상'이야? 내가 왜 '의존적'이야? 분노, 반발, 저항...'돌봄'담론에 대한 거부

# 전환적 가치이자 이념으로서의 돌봄

생태사회적, 지구적 차원의 돌봄

인간 사이 돌봄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...

자본주의와 돌봄 위기, 정치경제학적 접근: 돌봄정의(justice),  
교차정치경제학, 돌봄정치 등

## 문제시되는 접근

도구화하기, 수단적 가치로 여기기

양적 지원, 경제적 지원 확대에 머무르기

돌봄을 '대신'해준다는 담론으로 제도화

# 돌봄을 어떻게 말해야할까?

돌봄(cura, care) 걱정, 노고, 불안 vs 배려, 헌신

양가적, 양의적: 어떤 맥락에서 어떤 조건에서 달라지는가를  
물어야

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과 돌봄부정의를 질문해야

## 2. 누가 돌봄을 하나? & 돌봄 의 역할

# 필수적인 돌봄

---

인간 역량의 생산과 유지

---

모든 체제의 필수요소

---

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. 그런데 무급? 자연의 생태서비스처럼 간과되는 가치, 유급이라 해서 저가치평가의 족쇄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

# 돌봄 부정의(injustice)

돌봄의 가치나 윤리가 배제된 사회구조속에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(앵스터, 트론토)

개인의 경쟁을 조장하는 체제, 타인 돌봄을 회피하는 것이 이익

# 협상력? 제도적으로 결정된다

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직무 수행을 보류할 수 있는 능력

협상력이 약한 의존자, 돌보지 않겠다고 위협하기 어려운 돌봄자

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합의,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

# '운명'이 아닌 사회제도에 달린 것

돌보면 돌볼수록 협상력 저하, 기본적 인권으로 돌봄권을 제도화해야

선호 이론(좋아서 선택한 거잖아, 특성이잖아), 기존 규범에 순응을 요구하는 강제된 이타주의

시장의 힘이 알아서 할 것, 또는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탓하기

기술이 해결할 것? 낙관적 만능주의

# 사적 돌봄화->탈젠더화

돌봄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 의제: 가족과 국가는 같이 가는 것: 가족 책임이 '일차적'이고 '유일'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문제

언제든 가족으로 전가하는 사유화의 경로의존성: 돌봄정책/예산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서선 안된다는 기조 유지

# '가족' 책임?

어떤 '가족'을 말하나?

돌봄자가 '부양자/조달자'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가 문제

= 피돌봄자를 시민이 아닌 부양자의 피부양 의존자로 규정하는 전제가 문제

정규직 중심의 일부 집단에게만 적용, 비정형노동자 배제

노동자와 돌봄자로서의 동시역할 불가능하게하는 정책

# 돌봄의 타자화

성별화/인종화된 돌봄, 저가치화, 돌봄 패널리티, 지구적 돌봄 사슬

권리는 취약, 의무만 과중한 상황의 돌봄자

돌봄 수행/수혜의 주체화/보편화 저해

# 3. 전환

# 전환

돌봄의 의미와 가치의 전환

그저 돌봄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:  
무가치화, 외주화...

누구나 자기 삶에 돌봄을 들여야 한다. 함께-다르게-되기

# 보편으로의 전환

상호의존과 취약성이 특수성이 아닌

약자라서가 아닌,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

특수한 존재에 부속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요구

# 국가책임제?

돌봄책임자에 국가를 포함하는 것만으로 모순  
이 해소되지 않는다

예) 돌봄사회화 정책이 특정 취약집단을 동원하  
는 것,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만 국한되는 것...

# 돌봄의 순환

개인, 집단, 지역사회, 국가, 전 세계에 이르는 층위에서

함께, 좋은 돌봄을 모든 곳에서

구현되는 구조 안에서 순환해야

# 인권 패러다임,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

- 유엔, '돌봄은 자선과 시혜가 아니라 인권이다'
- 인권에 기반한 돌봄 시스템: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증진, 모든 정책의 대상을 권리의 적극적인 주체로 보아야지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서는 안된다, 목소리를 가질 권리(2024 유엔 정책 보고서)

# 실현을 위한 핵심틀 1 (2024 유엔정책보고서)

- 돌봄을 공공재로 위치시키기
- 상황 맥락적으로 구체적인 접근하기
- 전 생애과정을 관통하는 접근하기
- 돌봄과 젠더 평등, 둘 다를 가능케 하는 정책과 개입을 보장하기

## 실현을 위한 핵심틀 2 (2024 유엔정책보고서)

- 정부부처들과 다양한 차원(지자체, 국가, 지역, 지구적 차원)을 횡단하는 작업하기
- 국내법과 국제법, 규범적 구조내에 정책들을 안착시키기
- 긴급성과 장기적인 것, 둘 다에 배분되는 투입 사례 만들기
- 여러 분야가 제휴하는 접근 취하기

# 인권의 전환, 돌봄의 전환

- '돌봄은 인권이다'란 말이 성립하려면
- 인권: 이성적이고 '정상적'이고 충분히 협력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상정된 권리 주체간의 계약, 성적·인종적·비장애중심주의적 계약으로부터의 전환
- 돌봄: 부차적(그림자노동), 불평등, 억압, 가치의 불인정·무시로 부터의 전환